

生體 氣에 대한 波動共鳴的인 연구

류경호 · 김경철*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the wave resonance-stimulation and reception for the BIO-KI

Gyeong Ho Ryu, Gyeong Cheol Kim*,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wi University

The present condition of study on the wave-resonance for the bio-KI is observed. And the problems of reception attendant on the stimulation of wave is observed centering around the sensory organ. The results is as follows: In the wave-resonant stand point, the tendency of studying on KI is showed in the several field all over the world. Because it is originated radionics, the wave-resonant tools of MRA insistent minute-magnetism-resonance-apparatus need the more severe data in the side of electric circuit. The wave resonance apparatu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ccurrence transmits low-frequency's vibration ratio to the electric stimulating aspect. The wave-water is considered on the application of wave-resonance transcription on the water, and needs the comprehension of torsion-field level. The wave-stimulation of the bio-KI and the reception of the sensory-organ is observed the connection of the sensory-organ and it's corresponding wave. The informations recorded in the wave are distinguished patternly. And the several shaping waves transmit the informations each other through the resonance. The wave theory is explained the LEE(理) as the wave-pattern and the KI(氣) as the revelation of the patterned-wave in the LEE-KI theory(理氣論), moreover the SHIN(神) as the information of the wave-pattern and the KI as the energy of the wave and the JEUNG(精) as the material of the wave in the JEUNG-KI-SHIN theory(精氣神論). In this point, the study on the wave-resonance of bio-KI is thought that it is significantly in the study method for oriental medicine. The sum of the wave makes the moving body and forms the universe. It means that the several wave patterns gather and form new field. The pattern is a kind of the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is not materially. The information of wave-pattern is the arrangement and the combination of the material source.

Key words : wave-resonance, JEUNG-KI-SHIN theory(精氣神論), bio-KI

서 론

파동 공명적인 입장에서 生體 氣를 연구하려는 추세는 전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실정이다. 생체 氣의 특징은 항상 움직이는 운동으로 관찰되며 이 운동이 보다 더한 경우를 動으로 삼고, 보다 덜한 경우를 靜으로 삼는 것이 음양적인 시각이다. 운동은 동정의 편차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발현되며, 생체 氣의 파동적인 운동의 특성은 우주 자연의 시공간 氣의 특성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動靜의 파동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모든 존재는 항상 변화하는 氣의 입장에서 관찰 가능하다. 파동은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놓은 물질의 근본적인 한 측면이며, 파동은 진동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에너지 패턴으로써 합성·분해, 공명·동조, 증폭·감쇠 조작이 가능하고 홀로그램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식조차도 파동으로 취급하는 추세이다.

생체 氣에 대한 과학적인 파동공명의 연구는 미세자기, 미세전기, 미세전자기과, 뇌파동조, 미세 진동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적으로는 파동의 경계에 따른 자극의 양상과 수용의 문제가 큰 주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파동 공명적인 연구는 새로운 치료 기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세자기 공명장치라고 주장하는 MRA 계열의 파동공명 기기는 뛰어난 임상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adionics에서 기원한 점 등으로 인하여 전기 회로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엄격한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파수 발생에 의거한 파동 공명장치는 저주파 진동률을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onggwi.ac.kr, Tel : 051-850-8649
· 접수 : 2003/01/13 · 수정 : 2003/02/09 · 채택 : 2003/03/22

전기자극 양상으로 보내는 것으로써, 이는 파동 자극 양상의 한 측면을 이용한 것이다. 이외에 청각 및 시각 등의 인지자극과 미세진동 자극을 통한 방안도 있고, 이를 혼합하여 자극을 주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파동水는 파동 공명에 대한 물의 전사를 이용하는 것으로써, 토션 필드적인 場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부차적인 파동 공명기법의 이용법이다.

위와 같은 입상에서의 실제적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의계는 생체 氣의 파동적인 연구와 기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여 올바른 연구의 진행을 막고 있다. 이에 저자는 생체 氣에 대한 파동공명적인 연구의 현황과 파동자극 양상과 이에 따른 수용의 문제를 각각의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생체 氣에 대한 한의학의 주제적인 연구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론 및 고찰

1. 波動共鳴 연구 현황

1) 生體 氣를 波動 共鳴의 입장에서 규명하려는 연구

생체 氣 현상의 과학적인 규명을 위한 시도가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정신과학학회, 응용미약 자기에너지 학회, 대한 초능력학회, 심령과학학회, 한국인체과학 학회 등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초심리학회, 인체과학회, 국제 생명정보과학회 등이 있다¹⁾. 이들은 생체 氣에 대하여 뇌생리학, 정신활동, 생체방사, 기공, 정신집중, 잠재능력, 감각의 인식, 정신적 물리 현상 등의 실증적 해명을 통하여 21세기의 과학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개하고자 하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신호의 동시 계측에 의한 생체 기능 해석법으로 생체 기능의 종합적인 해석방법을 구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육체와 정신이 합치된 인체 기능의 시스템적인 해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인체에 대한 생리적인 계측인 뇌파, 심전, 맥파, 호흡 등과 더불어 신체 외부에서의 물리적인 계측인 각종 광자, 자장, 음파를 환경계측까지 포함시켜 동시에 계측하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생체 氣와 관련된 현상 규명에 이용되는 기본적인 측정 방법의 항목은 심박수, 혈압, 혈류량, 호흡, 피부전기전도도, 체열측정, 뇌파 측정, 심전도, 경락 기능 측정, 미세 자기장, 음성 분석 등이 있으나, 이들은 氣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氣 작용과 관련된 생체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氣 자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파동 공명의 연구 움직임은 Holism, Oneness, Win-win 등의 철학적 바탕을 갖고 있는데, 한의학의 整體觀이나 동양철학의 弘益人間, 仁, 慈悲喜捨 등과 통한다. 또한 살아 움직이는 생체 그대로를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생체를 前생리학적 前병리학적 으로 접근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²⁾. 파동공명이론이 구조와 조직 이전의 생체 氣를 인정하고 의학적으로 활용하려는 점에서, 파동요법의 연구 방법론을 주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21c에 맞는 한의학의 주제적, 능동적 변신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정신, 감정과 같은 보이지 않는 미세

한 파동을 측정하고 마음의 병을 치료함을 중시하고 있다. 인간 마음의 영역인 정신 사유 활동 또한 파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가 의도를 달리함에 따라 관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에서’ 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식의 파동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으로의 연구로 까지 진행되고 있다. 생체 氣가 한의학에서 心의 주도하에서 작용함을 논하고 있는 반면에, 서구의 파동적인 연구는 파동의 중심을 두뇌(brain)의 인식과 작용으로 보는 측면과 영혼(soul)의 입장에서 다루는 측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마음(心)으로 보던, 두뇌로 여기던, 영혼으로 파악하던 간에 살아 있는 생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을 연결하는 氣의 파동적인 입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극소량의 암, 알러지, 호르몬, 세균, 바이러스, 유독물질 등에 대한 검사와 제거가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므로 파동을 이용하는 연구대상이 더 확대되고 있다. 파동수, color therapy, aroma therapy, voice analysis, 치과재료, 알러지물질, 음식물, CHAKRA, 기공, 경락, 도형에너지, 정신적인 영역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영역으로의 확대를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암을 비롯한 질병을 물질과 생체의 고유 파동을 이용해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파동요법이 한의학의 생체 氣의학적인 입장과 유사하여 한의계에 많은 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실험 등이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이는 생체의 氣를 파동 공명 장치의 일종인 미약자기공명분석장치로 분석 진단한다는 내용으로써, 생체 氣에 대한 파동적인 연구에 일단은 가능성을 비추었다.

현재 생체 氣에 대한 파동적인 연구는 기초적인 차원이지만, 여러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체의 경락 흐름을 컴퓨터 데이터화한다는 발상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는데, 경락을 측정하는 메리디안 EAV로 부터 발전한 독일의 베가 진단기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분자 운동적인 시스템으로써 인체 각 세포로부터 조직을 통하여 기관으로 가는 흐름이 있다는 미세자기 공명 연구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개발된 MRA가 대표적이다. 모든 것은 움직이면 에너지가 형성되고 에너지가 형성되면 장이 이루어지니까, 각 세포 부위에서 일어나는 주파수대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이것을 바탕으로 표준주파수를 입력시키고, 측정치와 대비해서 숫자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음성을 분석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해석하는 성분 분석이 있다. 인체에서 음성만큼 강력하고 분명한 파동의 성격을 나타내는 현상도 없을 것이다. 이는 파동이 인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 웨리 에드워즈 등은 1996년 글로벌 사이언스 회의에서 목소리로 진단하면, 바로 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주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음성 분석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빛과 소리와 진동을 통한 뇌파 변조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빛 소리 등의 認知 刺戟을 통한 뇌파 변조 상태에서의 연구는 정신 개발 장치와 아울러 신체 질병 치료 기기로 개발 중이며 21c 새로운 의료 영역이 되고 있다. 특히, 뇌과학, 두뇌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생체 氣 의학과 관련지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생활활동의

1) 박영호외2인, 국제생명정보학회의 최근의 연구 동향

2) 방건용, 미약자기공명분석의 역사와 원리

질서를 조절하고 회복시키는 음악, 음파요법 등이 있다. 음악 요법은 음악을 통해 자율신경계로 하여금 신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파동요법이다. 파동 요법에는 이외에도 자극과 수용의 방법에 따라 향기요법, 파동적인 음식요법, 빛 요법 등이 있다. 끝으로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동구권 연구도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매우 뛰어난 면들이 있는데, 뛰어난 연구성과 만큼이나 폐쇄성과 자료부족으로 충분한 접근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계속되는 놀라운 연구 성과들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

2) 機器 분석

생체 氣에 대한 파동적인 연구는 파동기기와 더불어 시행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파동의학 기기의 다양한 발전은 소련의 Kirlian 사진기, 유럽의 EAV, BICOM, MORA, VEGA, Quantum-FAFA, 미국의 MRA, SOMATOSCOPE, Voice Analysis, 일본의 QRS, LFT, 한국의 맥진기, BRS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보다 직접적으로 파동요법과 관련이 있는 최근의 기기를 분석해 보고, 그 원조적인 MRA 계통의 허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Quantum-FAFA는 동종요법 Remedy Code 3400여종으로 알려지, 감정 정서, 유전자,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진균류 등을 다루고 있으며, EEG, EKG, 치아 관련, 신체 각 기관에 대한 병의 원인에 대한 민감도, 정신 차크라, 내분기계, 면역계, 영양 흡수계, 경락 기능, 40항목에 대한 위험도,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생체리듬 등을 검사하고 있다. 더불어 검사결과에 대한 주 치료 외의 치료 프로그램으로도 Autofrequency therapy, Auto Trivector, Auto Color Therapy, Music Therapy, Voice Detector, Mental NLP Interface, Hololinguistic Therapy, BICOM+MORA, Anti-Aging 등이 있다. 일본의 QRS, LFT는 해부, 생리, 병리, 기타에 대한 Code, 약 3000종과 근골격계, 신경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생식기계, 오관 피부계, 치과 관련, 비타민, 아미노산, 원자, 음식물, 암, 당뇨, 알레르겐, 농약독소, 세균, 바이러스, 진균류, 색, 경락 등의 검사항목이 있으며, 병적인 파동Code에 대하여 정상적 파동을 전사하여 치료한다. 한국의 BRS는 이들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다. 독일의 BICOM은 EAV, 알레르겐 검사, Biosencer, Kinesiology 등을 검사항목으로 하며, 치료 주파수는 10 Hz - 150 kHz 범위의 파동의 분류로 구성되고 치료 프로그램의 수동 조작으로 400여 적응증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233개를 개발하여 치료하는 전국 도자의 다양함을 갖추고 있다.

MRA는 파동요법을 한의계에 널리 알린 대표적인 기종으로, 위에서 언급한 유사한 미약자기공명분석장치 종류의 원조 격이다. 이는 미국의 Ronald J. Weinstock이 Magnetic Resonance Analyzer라는 측정장비를 개발한 것에서 비롯되어 일본을 거쳐 한국에 까지 보급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소개될 때만 해도 검사 시료의 저장 특성, 파동 특성을 계측하고 이 파동과 컴퓨터의 코드가 입력으로 작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파동만을 푸리에 변화를 통하여 뽑아낸 다음, 오퍼레이터에게서 방사되는 파동과 어느 정도로 공명을 이루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상물과 계측하는 인체와의 사이에는 일체의 가시적인 전기회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검사물의 정보를 물리적인 센서로 읽어내

지도 않는다. 즉, 기계적인 센서는 없으며, 계측자의 편의상 검사 대상물을 시료판 위에 놓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기기의 동작 원리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제도권의 합리적인 연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활용 연구논문은 발표되고 있으며, 한의계에서는 의료용으로 활용되어 암 등의 조기 진단에 다른 의뢰기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파동수로의 질병 치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용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MRA류의 파동 측정은 검사체가 검사하려는 항목 코드에 대해 공명·비공명음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인데, 회로 분석을 통하여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요인은 손을 전극에서 떼는 순간 손의 전기적인 임피던스와 손가락이 전극에서 떨어지는 속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부의 임피던스는 汗腺의 활동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성 등 물리적인 성질의 차이에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된다. 장비 자체는 코드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공명·비공명음을 내고 공명·비공명 상태를 만드는 것은 오퍼레이터 자신이다. MRA류의 파동의 공명 비공명은 피부 전기 활동측정법과 라디오닉스 장치 등으로 설명 가능하다. 손의 전기적인 임피던스의 변화는 정신작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정신생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비선 땀샘은 전적으로 자율신경계중 교감신경계의 통제를 받으며, 부교감신경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부 전기 활동을 자율 신경계 각성 수준의 지표로 사용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 피부 임피던스 변화를 통해 자극과 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기도 한다. 실험적으로 유발된 긍정적인 정서상태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의 피부전도 반응 측정치들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부정상태에서 피부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비공명음으로 판정할 확률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피부의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여 직접 물질의 독성을 판별하는데 활용하는 싱크로미터 장치도 있는데, Hulda Regehr Clark의 the cure for all disease와 the cure for all cancers에 잘 나타난다. 이는 저항 대신 피부를 이용하여 간단한 발진회로를 구성하고 발진음을 스피커로 들도록 하고 있다. 발진의 주파수는 피부의 저항값에 따라 변하며, 결국 음의 고저를 통해 공명과 비공명을 구분하는 것은 피부의 임피던스 변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된다. 이로 보아 인체의 피부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공명 비공명을 구분하는 원리로 이용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한편, 미약자기공명분석기의 연원으로 라디오닉스(radionics)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MRA나 QRS 등의 장치들도 이 라디오닉스의 원리에 컴퓨터 시스템을 접목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라디오닉스는 미지의 파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20c초에 미국의 에이브람(Abrahams)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라디오닉스 역시 공명, 비공명의 개념을 이용하는 장비로써 과학적인 원리가 기존의 제도권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옹호자들은 이에 대해 양자 혁명, 불확정성 원리, 비국소성 실험, 양자 역학에서의 관찰자의 영향, 양자진공, 집단무의식, 텔레파시 등의 이론과 실험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에는 기계론적인 과학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의미를 가지며, 라디오닉스 치료가 양자 진공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의 도구들은 가상적이며, 시술자로 하여금 마음을 모아서 무의식적으로 치료에 대한 바람직한 파동을 지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의식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무의식 영역을 의도적으로 건드릴 수 있게 함으로써 심리 상태에 유익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이런 점은 라디오닉스 치료에 환자의 요구나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에서 잘 반영되고, 그리고 라디오닉스가 발전된 파동 요법기의 원리를 인체와 주위 사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생체정보를 공명분석하여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체에 필요한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생체 정보적인 차원에서 응용하려는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이른바 미세자기공명장치 계열의 원리에 대한 양심적인 한국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BRS를 개발한 한국정신과학연구소 측의 생체정보(Bio-information)론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BRS를 위시한 파동장치의 측정방법은 인체가 주변의 사물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기적 변화를 분석하기 때문에 측정자 자신이 바로 생체 정보 분석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며, 따라서 측정자의 숙련 정도가 분석의 정확도에 큰 요소가 된다. 즉, 인간의 잠재능력을 적극적으로 계발, 활용하여 임의의 시료에 대한 미지의 생체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라디오닉스 계열의 파동 측정장치는 진동자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동자법(radiesthesie)의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른바 미세자기공명장치라는 것은 인체가 주변 사물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상태를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해석의 방안이라고 추정된다. 이점은 라디오닉스가 공명 비공명 반응을 일으키는 점이 인체 전기 저항의 변화를 이용한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다만, BRS측의 자구적인 생체정보론이 연구자의 진솔함을 표현한 것임에 비하여, MRA나 QRS측의 계속된 미세자기공명장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기기의 회로상에 생체 미세자기 공명장치가 없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차적인 해석을 마치 일차적인 원리로 오해하고 의료계와 일반인을 오도하는 잘못은 삼가야 한다. 즉, 라디오닉스 계열의 발전된 파동요법 장치는 인간의 무의식 영역³⁾을 활용하는 것으로 원리적으로는 진동자의 방법과 완전하게 동일하며, 인간이 반응할 때 나타나는 양상을 전기저항적으로 또는 미세자기공명적으로⁴⁾ 해석하는 것이다. 이처럼 해석에서의 이 두가지 견해의 차이는 시대와 더불어 발전된 과학 이론의 도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 무의식의 반응으로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들 둘의 변화가 있는 것과 이들 상호간에는 함수관계도 있으리라고 추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차적인 해석이다. 이제 여기에 온갖 첨단 과학 이론이 도입되어 자기류의 해석에 이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3) 周波數 발생에 의한 波動 共鳴 장치

전기자극은 주파수 발생의 파동을 미세전기로 전환하여 신체를 자극하는 방안이다. 이는 순전히 신체 자극용으로 연구되고 있다. 주파수 중심의 파동을 전달하는 방안의 하나로 선택된 전기자극은 치료 양상은 저주파 치료기와 동일하나, 선택된 정밀 주파수 중심의 전기자극 치료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주파수 발생의 전기자극은 라이프 장치에서 비롯된다. Royal R. Rife가 개발한 Rife-Frequency Generator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다. 오리지널 Rife 장치는 기타 사회적인 요인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으며, 최근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임스 베어(James E. Bare)도 라이프 장치를 바탕으로 1995년에 라이프/베어 장치라는 생체 활성화 장치를 만들었다. 이 라이프 장치는 에이브람스 장치의 변형이다. 라이프 장치보다 앞서 개발된 Tick-Tock Oscillator(똑딱 진동자)가 있다. 이는 1918년에 Albert Abrams가 개발한 장치로써, 43MHz 영역에서 낮은 에너지를 갖는 단파의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1931년에는 좀 더 기술적으로 개선된 오실로클레스트(Oscilloclast)가 있다. 이는 일종의 저출력 라디오파 전송장치로서 60Hz의 저주파 파동으로 변조되는 라디오파를 만들고 전극을 통해서 환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80가우스의 자장 에너지를 보내는 장치라고 한다. 라이프 장치는 에너지 출력이 에이브람스 장치보다 몇 배나 더 크며, 훨씬 넓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다. 또 라이프 장치는 안테나로 플라즈마 튜브를 사용하고, 병원세포를 죽이는 진동율(MORs: Mortal oscillatory rates)이 고주파의 라디오 주파수로만 주어지며, 애초부터 변조된 기형주파수의 저주파 진동율은 없었다. 플라즈마 튜브와 라디오파 전송기, 그리고 다양한 진동 펄스를 사용하였고 환자에게는 한쌍의 교류 소극 장치를 연결했다. 소극 장치는 라디오 에너지가 튜브에서 펄스로 출력되는 것에 맞추어서 플라스와 마이너스 극성을 바꾸는 직류 전기를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소극 장치에서 나오는 출력은 오실로스코프에 방형파(square wave)로 나타난다. 지금의 라이프 장치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저주파(가칭 주파수)의 진동율을 갖는 MORs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암의 저주파 MORs는 2,128Hz이나, 라이프는 이와는 달리 28,825,455Hz의 고주파를 사용했다. 현재에 저주파 MORs를 사용하는 것은 오실로클레스트의 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60Hz의 저주파 변조가 오늘날의 라이프 장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오리지널 라이프 장치에는 저주파의 직접적인 변조가 없었으며, 여러 가지 주파수의 펄스를 갖는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했을 뿐이다. 펄스가 가해진 라디오 주파수는 가스가 가득찬 튜브로 들어간다. 펄스는 플라즈마 튜브로 들어가는 전송장치의 출력 신호를 통제하면서 만들어진 다. 이 펄스가 꺼졌다 커졌다 반복하는 사이클을 이루고 이에 따라서 튜브의 불빛도 진동한다. 이렇게 생기는 충격파가 막대한 라디오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라이프 장치의 문제 핵심은 진동율을 찾기에 대한 내용이다. 현미경을 이용해서 진동율을 찾아내는 라이프의 방법이 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한쌍의 프리즘과 현미경을 사용하여 단색광에서 투사되는 빛을 대상 세포에게 쏘아 보내면 특별한 색깔에서 세포가 반응하여 다른 색깔을 재 복사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살아있는 세포에

3) 여기서는 초능력을 말한다.

4) 초기의 라디오닉스와 현대 컴퓨터와 접목된 경우의 비교

서 일어나며 이것을 일종의 얼룩이나 레인버그(Rheinberg)무늬의 변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이프 현미경에서는 세포가 채색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하얀색으로 남는다. 그러다가 MORs에 도달하게 되면 문제의 세포는 공명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잃고 투명해진다. 그런 후에는 세포가 변화를 일으키거나 죽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가 MORs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다. Rife 박사는 1920년대에 인간의 암 바이러스를 추출해 내어 이를 배양하기 가장 좋은 숙주인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에서 배양하여 400마리의 쥐에 주사한 결과, 400마리의 쥐가 모두 다 암에 걸리는 연구 성과를 올리게 된다. 그 후 그는 바이러스가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전자기 에너지를 가진 주파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Rife 박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체든, 생물체든, 병원균이든 간에 고유의 분자 진동 패턴(Molecular Oscillation Pattern)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주파수로 치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 주파수를 bio-active frequency라 하였다. 생명체가 제각각 고유의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있으며, 미생물도 고유의 특정한 분자 진동 패턴을 갖고 있다.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도 측정 가능한 고유의 주파수를 발산한다. 만일 이 주파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면, 그 부위는 무기력해지고 질병이 자리잡기 쉽다. 이 주파수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그 부위는 질병을 스스로 물리칠 수 없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신체 내부 조직도 약해져 질병이 퍼져 나가게 된다. Rife 박사가 고유의 주파수를 찾아내어 정리한 bio-active frequency는 몸에 침투하여 문제 부위에 대응하는 특정 주파수로 그 지역을 공격한다. 이 주파수는 그 부위를 싸고 있는 병인을 죽임과 동시에 그 신체 부위가 침입한 질병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도록 정상 주파수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Rife-Frequency Generator는 병의 원인을 외부의 바이러스 등으로 보고 이를 제거하는 주파수를 전자기극의 형태로 방사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에서 바이러스 뿐만아니라, 기생충으로까지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The cure for all disease와 The cure for the cancer 등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을 기생충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활용 장치에도 라이프 박사 계열의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치료에 따라서는 병원균이 죽으며 토해내는 독소가 일시적으로 증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하여, 기존 제도권 의학의 입장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파동 공명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생체 중심의 파동 공명 장치가 아니라, 외부 병인 중심의 치료 주파수 파동 공명 장치인 것이다. 지극히 서양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생체 활성화는 이차적인 의미라고 여겨진다. 즉, 병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기생충 등을 제거하고난 후, 해당 부위의 정상적인 주파수 발생을 의미하므로 직접적인 생체 활성화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4) 波動이 전사된 水

파동수는 미세자기 공명장치 계열의 파동 기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파동요법의 치료 방안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흔히 파동요법의 발전적 연구 방향

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이 파동의 전달과 저장에 관여하고 있는 알레르겐 실험, 동종요법의 희석액, 기도 정수물, 물의 빙결 사진 실험 등으로 언급된다. 파동수의 역할은 건강한 생체의 정보를 전달하여 병적인 파동을 교정하는 것으로 이미 파동수의 상품화 단계로 이어진 형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특히 이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내에 이른바 파동요법을 초기에 소개하면서 의료계 뿐만아니라, 약사들에게도 파동기기를 활용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물의 활용으로 영업 작전이 구사된 탓이다. 실제 서구에서는 일본과 한국처럼 물이 그렇게 임상적인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료인이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기기의 부품과 활용상에서 말하고 있다. 파동수의 지나친 관심은 약사가 힘을 쓰는 한국 의료계에서 나타난 병태적 산물의 한 측면이다.

물의 異常性에 대한 기존의 과학적인 입장은 녹는점, 끓는점, 밀도의 변화, 표면장력, 비열, 점도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cluster 이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물의 수소 산소 분자의 결합 구조로 파동의 전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 분자의 결합 구조가 달리 형성되어 파동의 정보를 함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무식 박사의 육각수 주장과 연계되어 육각수가 뛰어난 파동의 정보를 함유한 것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연구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처럼 물방울이 형성되기 위한 최소한의 물분자수가 6개임을 증명해 보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물의 정화작용과 에너지 활성화작용은 원추형 구심성 나선운동(Vortex Motion Implosion)으로 인한 엔트로피 증가로 설명된다. 빅터 사우버거가 구심성 응축이론에서 주장한 원추형 구심성나선운동(vortex motion-implosion)은 대자연의 역동적인 창조와 생성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 공간에너지로서의 氣 연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자의 토션필드 이론의 근간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직선형 팽창운동의 엔트로피 감소와 상반되는 것으로써 자화된 물이 파동을 전사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 파동 요법적인 물의 정보 기억 효과(water memory effect) 등의 초과학적인 현상의 작용 기전을 밝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토션필드(torsion field)가 주장되고 있다. 이 가설은 1920년대부터 그 존재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고, 주로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러시아의 나하로프 박사의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 토션필드는 비틀림 場, 회전장으로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학의 영역에 의식의 영역을 포함하는 영역까지 확대 시킬 통일장 이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토션필드는 회전이나 각운동에 의해 생성되며, 회전방향에 따라 좌, 우 토션필드가 존재한다. 모든 물체는 고유의 토션필드를 가지기 때문에 영구자석의 토션필드는 물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장의 이런 성질은 물의 자화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증류수는 반자성체이므로 자기장이 증류수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종래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의 물의 전사 효과에 대한 기전은 물속의 미네랄로 파악하였다. 미네랄 성분이 파동의 정보를 각인하

여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질 좋은 미네랄이 풍부한 약수를 상품화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으며, 증류수에 대한 파동 전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나왔다. 이런 파동 전사의 기전에 대한 미네랄적인 입장은 물 분자의 결합구조를 주장하는 쪽과도 연계를 가져, 양질의 미네랄이 물의 결합구조를 파동전사에 알맞게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증류된 물의 자화효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으며, 자화는 자기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의 토션필드에 영향을 끼치는 토션필드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션필드는 어떤 공간상에 정전기장이나 전자기장이 존재한다면 그 공간 영역에 항상 토션필드가 존재하므로 파동수의 정보는 토션필드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물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파동수는 이른바 미세자기 공명장치 계열의 파동요법 기기들에 의해서 자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치는 공간 기 에너지의 파동적인 특성에 의해 각인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파동수의 응용이 한의학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런 입장에서 파동수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물이 든 컵의 좌우 회전으로 토션필드를 형성하여 파동수를 제조할 수도 있으며, 주파수 중심의 미세진동 발생 장치 연구에서 처럼 음파를 이용하여 파동의 주파수 영역별로 파동수를 제조하게도 된다.

2. 波動 刺戟과 受容

1) 波動 境界에 따른 刺戟과 感覺器의 受容

물질과 의식의 탐구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현대 과학적인 측면에서 물질과 현상이 존재하는 세계는 파동의 세계이다. 물질 과학과 더불어 정신, 의식, 무의식의 연구에서 인간이 끈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패턴이며 질서이다. 자연의 질서, 패턴을 찾아온 인류가 6개의 감각 기관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최종 결집해 만난 것이 파동이다. 흔히, 생체 기의 자극과 수용의 파동적인 입장은 六感과 波動의 연계로 이해한다. 현대과학이 밝혀놓은 물질의 근본에 대한 논쟁중에 빛이 파동이나 입자나 하는 해묵은 것이 있다. 이는 이제 빛 자체의 성질을 밝혀내기 보다는 빛을 보는 시각이 무엇이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양자역학적인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관찰자의 의식이 대사에 영향을 미치며, 광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행동한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토마스 영은 쌍슬릿 실험에서 빛이 회절이라는 파동만의 특성을 보이며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니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이론을 빌리면 광자가 전자 하나를 때릴 때마다 당구공 하나가 다른 공을 쳐내듯이 광자가 전자를 쳐내는 것이니 이는 빛이 입자일 때만 설명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광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ERS 패러독스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35년 미국 물리학 회지 *physical review*誌에 발표되었다. 이런 광자의 행동의 통일성에 대한 실험의 이론적인 기초가 된 것은 벨의 정리였는데, J.S. 벨은 “양자 역학은 우리의 우주관을 변화시켰다. 근본적인 변화란 물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완전하게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계 전체는 하나로써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빛 뿐만아니라 물질도 파동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파동으로 알고 있던 빛이 입자라면 입자라고 생각하던 전자도 파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명제에서 물질파를 생각해낸 것이 프랑스의 드브로이였다. 전자를 파동이라 생각하여, 전자가 원자핵에 끌려가지 않고 특정한 궤도를 돌도록한 것이다. 그는 이것을 물질파라고 하였다. 그리고 1927년 미국의 데이비슨에 의해 전자에도 파동성이 있다는 사실이 니켈 결정에 투사된 전자가 회절 현상을 일으키는 실험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제 물질은 어느 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입자가 아니라 모든 곳에 확률적으로 분포하는 파동이 되고 말았다. 이런 실험과 발견들은 만물이 입자보다는 하나로 연결된 파동으로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전물리학에서는 A입자와 B입자의 충돌 후에 어느 것이 A이고 B인지 구별할 수 있었으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는 더 이상 이 둘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양자 역학적인 입자란 변함없는 성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적 세계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대 입자적인 물질과 미시적 세계의 소립자적인 파동 성질을 연결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솔리톤(soliton)⁵⁾ 현상이 있다. 솔리톤은 일정 시간 유지되는 고립파를 의미한다.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는 파동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솔리톤은 거시세계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바다에서 보이는 해일파, 목성의 대기 위를 떠 다니는 소용돌이, 금속 격자 속의 진동, 생물체의 단백질을 따라서 전달되는 화학에너지 등은 모두 솔리톤으로 설명된다. 이렇게 다른 고립파와 상호작용할 때 본래의 모양을 정확하게 보존하는 고립파를 특별히 솔리톤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의 특징은 파동이 입자적인 성질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립자들도 파동중 일부의 펄스파가 유지되는 솔리톤으로 보려는 시도도 행해지고 있다. 입자마저도 파동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정도로 파동은 전 물질계의 근본 인자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만물이 진정 파동들이 합쳐진 파형 즉, 파동패턴이라면 이 우주 공간은 수많은 파동들이 섞여있고, 그중 솔리톤의 특성을 발휘하는 파동들이 입자적 패턴을 이뤄 물질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일정한 파동인 솔리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일정한 정보의 파동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이얼 왓슨은 그의 널리 알려진 책 ‘초자연’에서⁶⁾ “우주는 시끄러운 소리가 뒤섞여 있는 난장판이다. 생물은 형태가 없는 이러한 무질서로부터 형태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나는 거꾸로 생물 자체가 형태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이러한 생물을 만들어낼 때 사용된 설계도는 생명이 지금도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우주의 힘들 속에 내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고 있는 형태란 바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생물은 패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5) 현문식 역, NHK 아인슈타인 팀, 빛의 수수께끼, p. 161

6) 입자적 성격을 띠는 파동, 솔리톤은 선박 설계 기술자인 영국의 존 스콧 러셀이 1834년 여름, 스코틀랜드 운하에서 거룻배의 운동을 관찰하는 도중에 이상한 파동을 보게되는 것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7) 이원규, 파동의 회오리가 창조하는 우주적 패턴

8) 초자연 1장 p. 33

그런데 패턴은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그저 문양(紋樣)이다. 근본적인 힘의 배열일 뿐이며, 정보의 덩어리일 뿐인 것이다.

그러면 감각 기관들이 감지하는 대상들은 무엇인가. 생물체를 이루는 패턴들은 서로 연관되고 영향을 주고 있다. 생체가 정보를 주고받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근본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생체 氣에 대한 파동적인 연구에서 볼 때 우주적 파동의 간섭 무늬인 DNA정보에 생명력이 비춰져서 이루어진 인체는 6개 감각의 파동 패턴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색깔들은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밝은 붉은 색에 노출된 사람들은 호흡수, 맥박, 혈압의 증가를 보인다. 붉은 색은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푸른색에 노출시켰더니 정확히 그 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왔다⁹⁾. 문제는 색깔의 영향이다. '빛의 종교'라고 불리기도 하는 조로아스터교 집안에서 태어난 인도의 단샤(Dinshah P. Ghadiali)는 'The Spectro- Chrome System'이라는 광선치료법을 개발하였다. 천재적 의학자인 단샤는 어윈 D. 바비트 박사의 '빛과 색채의 원리'라는 책을 읽고 광선이 단순히 시각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스펙트로 크롬이라 부른 광선 색채 요법으로 평생을 이 치료법에 바쳤다. 아버지의 뜻을 이은 그의 아들 다리우스 단샤가 쓴 '빛이 있으라(Let there be light)'라는 책에는 생체의 세포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광선이 어떤 연관이 있으며, 공명현상을 통해 어떻게 연결 될 수 있는 지 잘 설명하고 있다. "생체내에서 각 세포들은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것이 오라이다. 그러나 기능 장애가 생기면 오라의 주파수나 강도가 변할 것이다. 세포의 방사에너지의 집합체를 오라 또는 색채-균형 주파수라 한다. 건강하고 조화롭게 신진 대사가 행해 질 때는 오라의 색깔이 적색과 보라색 사이에서 균형 잡혀 있다.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려 있을 동안에는 스펙트럼은 어느 한쪽 끝으로 움직이거나 그 강도가 바뀐다. 스펙트로 크롬은 신체의 어떤 부위가 비활동적일 때는 그 부위의 원래 주파수와 공명하는 색깔을 주사하여 활성화시키고 과잉 활동적인 부위에는 반대되는 색깔을 주사함으로써 가라 앉히는 효과를 유도한다¹⁰⁾". 이처럼 단샤의 작업은 눈이라는 우리의 감각 기관이 감지하는 색채가 우리의 몸 전체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단샤는 각 색깔에 상응하는 소리가 있으며, 이를 주파수로 분류해 놓기도 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의 주파수는 G음의 주파수와 유사하며 그 치료 효과도 비슷하다고 단샤는 말한다. 색깔을 연구한 이가 소리와 유사점을 밝힌 것이 단샤라면 프랑스의 현대 작곡가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NEN : 1908~1992)은 일생 동안 소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음악과 색상의 대응 관계를 밝혔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의 모든 느낌은 음악으로 변형되고, 모든 음악은 어떤 색상과 상응한다. 푸른 빛이며 오렌지색, 녹자색 등...¹¹⁾" 주파

수 파동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형태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음성 치료법을 연구해 온 셰리 에드워즈는 1996년 글로벌 사이언스 국제 회의에서 음성과 뇌파와의 상호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의 음성이 뇌파 방출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부족한 음을 인간의 뇌파 유형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는 성음계(聲音階)를 들려주면 그 음이 뇌파를 자극하게 되어 근육기능이 회복되고 생화학 기능이 균형을 회복한다. 음악의 음계는 인간의 뇌파 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기능, 생화학기능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¹²⁾" 한편 어떤 음악은 슬프고 어떤 음악은 평온을 주며, 또 어떤 음악은 우리 마음에 흥분과 투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같이 음악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이다. 특히 자연의 소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 소리나, 미풍의 소리는 상쾌함이나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 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진동 현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판명되었다. 이런 진동의 형태를 컴퓨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특이한 장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1/f 요동 특성을 보여주는 음악이 많으며 자연의 소리와 인간이 만든 음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20년 쥘 전기 공학 분야에서 1/f 노이즈라는 현상이 이슈가 되었다. 이것은 진공관의 열잡음에 관계있는 형태의 하나로, 통계적으로 어떤 경향을 가진 진동형태를 띤 것이었다. 음의 주파수(X축)와 파워(Y축)가 반비례하고 그 분배가 45°를 가리키는 선(x, y축의 그래프에서 좌상-우하를 연결하는 선)이 1/f 이다. 이 직선 위에 파형(波形)의 중심을 타는 진동을 1/f 요동(1/f Fluctuation)이라고 하는 것이다. '뇌내혁명'의 저자 하루야마 시게오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르키는 직선 위에 파형의 중심을 타는 템포나 리듬을 가진 음악은 사람을 가라앉히며 자율신경의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f 요동'이라는 것은 우주 창세로부터 대자연의 악동 중에 있는 진동과 같아 그러한 것들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원자나 분자의 운동이나 생명의 탄생에까지 이 '1/f 요동'이 관계하고 있다고 합니다¹³⁾." 또 일본건강과학학회 이사인 시게오 와타나베는 이렇게 말한다. "1/f 요동을 가득 담은 음악을 듣는 것은 평온의 엑기스를 흡입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평온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1/f 요동을 가득 담은 음악을 듣게 되면, 뇌의 알파(α)파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다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음악이 좋을 까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도된 실험 결과이지요.¹⁴⁾" 이상은 시각에 해당하는 빛과 색깔, 청각에 상응하는 음성과 음악의 파동을 살펴본 것이다.

후각과 냄새의 상응도 파동으로 이해 가능하다¹⁵⁾. 향기의 파

9) 이런 내용은 칼라치료법에서는 이미 고전적인 내용이다. 특히 경혈 부위에 자극을 주는 colorpuncture에서는 光色療法에 대한 음악양행적인 연구를 마치고, 임상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10) let there be light, p.111

11) 건강과 음악치료 p.136

12) 96' Global science congress video, Sharry Edwards

13) 뇌내혁명, 156p.

14) 이원규, 파동의 회오리가 창조하는 우주적 패턴 17p.

15) 이는 향기요법으로 이미 임상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단지 파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더욱 요하는 측면이 있을 뿐이다.

등성에 대해 동물들이 내는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의 향기가 수 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까지 전달되는 것은 공명 현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입자라면 그토록 멀리까지 전달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파동은 진동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므로 커다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멀리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 페로몬은 각 동물마다 특이해서 동종(同種)만이 멀리서도 그 냄새를 지각한다. 이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그 냄새와 같은 진동수를 가져 공명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혀와 미각의 상응도 파동적인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다. 본초학에서 약성학(藥性學)의 기초는 氣味論이다. 이 중에서 味는 본초의 맛인데¹⁶⁾, 五臟의 색과 대응되는 맛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이들 맛이 나타내는 각각의 주파수를 측정하고 있는 연구도 진행중인데¹⁷⁾, 맛을 이용한 식이 요법 치료에 대해 “혈액형 A형은 음(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음에 해당하는 음식만 먹으면 극음화되어 부조화가 일어나므로 양성의 음식을 주어 중화시키면 각 개인의 고유 주파수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각 미각 별로도 그러하네 일례로 간이 나쁘면 신맛을 금합니다. 산과다증은 간의 병적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미각 역시 파동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오장과 맛, 색깔을 연관지어 생각하고, 깊은 상관 관계를 발견했다는 것은 색과 소리가 주파수로 서로를 연관짓듯이 맛 또한 이들에 대응하는 주파수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볼 수 있겠다¹⁸⁾.

다음은 촉각이다. 접촉을 통해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중 최근에 유행하는 기(氣)제품들은 바로 접촉을 통해 인체의 기운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스름 기 연구회의 문양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의 문양은 충북 대학과 이화 여대에서 직접 실시했던 라만 분석기 등의 첨단 기기를 이용한 실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깨어지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생성하는 문양이 우리 몸의 깨어진 기운과 공명 현상을 일으켜 원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더 원활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마치 수맥 파동이 올라와 우리 뇌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유사한데, 수맥이 나오는 자리에 문양을 놓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힘이 세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맥의 유해한 파가 문양과 공명을 하여 파동 패턴이 바뀌고 다시 우리 몸과 공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맥파라는 파동이 전달되고 바뀌는 것은 공명 현상으로만 설명이 되어질수 있는 것이다¹⁹⁾.

이런 신체의 미세 진동으로의 촉각은 기공 공법중의 회춘공에서 느낄 수 있다. 회춘공의 振動은 그냥 서 있는 기공의 편안한 자세로 몸 흔들기를 하는 것이다. 즉, 그냥 선 자세로 전신을

흔들어서 떼는 것이다. 양다리를 조금 벌리고 무릎을 약간 굽힌 듯이 하고 선 채로 전신 근육의 긴장을 푼 다음에, 몸을 가볍게 흔들어 진동하는 것이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 등의 관절이 요동하게 하여 온 몸이 떨 듯이 가볍게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다. 팔 다리는 물론이고 남성은 불알이 양다리에서 흔들거리고, 여성은 유방이 흔들거릴 정도로 한다. 미세한 진동일수록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흔드는 동안 전신의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을 비롯하여 몸 안의 모든 내장 기관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신체의 어느 한 부분도 긴장된 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回春功이다. 전신의 세포와 물을 흔들어 줌으로써, 생체를 활성화하여 젊음을 되찾는 기공으로써, 바로 전신 촉각에 vibration을 활용한 기법이다.

인간의 의식 역시 파동 세계의 다양한 모습 중 일부이다²⁰⁾. 1967년 구소련의 포포프 그룹(Popov group)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텔레파시의 활동을 탐지하는 실험을 했다. 레닌그라드에 있는 방음 장치가 된 밀폐된 실험실 안에서 칼 니콜라이예프(Karl Nikolaiev)는 자신을 ‘완전히 긴장이 풀어져 있지만 뛰어난 주의력을 갖게 되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때 그의 뇌는 안정된 알파 리듬을 내고 있었다. 그 시간에 상당한 거리에 있는 모스크바의 실험실에서는 유리 카멘스키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신호를 보낸지 정확히 3초 후에 니콜라이예프 뇌의 알파파는 갑자기 방해 받으면서 격렬하게 변화되었다. 충격파가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640Km를 가로질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가시적인 증거가 역사상 처음으로 얻어진 순간이었다²¹⁾. 이런 의식적 패턴 외에 감정적 패턴 또한 ‘진동’이란 말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절정이란 말 속에는 언제인지 모르게 ‘떨림’이란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황홀함, 오르가즘 등의 단어 속에는 ‘떨림’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떨림이 바로 아주 강한 세기의 파동이다. 파동의 세기가 낮을 때는 강렬한 느낌이 적어 미처 느끼지 못하나, 파동의 세기가 높아지면 충분히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삶, 이것은 바로 아주 약한 세기의 주파수를 의미하나, 모험적인 삶이나 강렬한 삶을 우리는 스릴있다고 한다. 스릴(thrill)은 부르르 떨림, 전율을 말한다. 이렇듯 잔잔한 감동에서 강렬한 황홀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감정적 신체의 주파수 대역으로 참으로 다양하다²²⁾.

2) 파동 공명

우주에 충만한 파동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파동에 실린 정보이다.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란 구별되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6) 현국 윤길영 선생님은 동의학의 방법론연구에서 味를 물질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味를 화학적 구조로 살펴본 다음, “味는 물질 구조의 총체적 관계 즉, 물질의 전체를 의미한다. 內經에서 물질의 대명사로 味를 쓰는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氣味로 짝 지워 한약을 연구한 한의학의 연구방법론은 물질과 정신, 입자와 파동의 변증법적인 연구방법론으로써 그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며, 파동의학의 기틀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17) 이른바 미세자기공명치료기 계통의 파동요법의 주된 관심사인데, 파동을 중심으로 맛을 정리하여 파동 식이요법에 활용하고 있다.

18) 이원규, 파동의 회오리가 참조하는 우주적 패턴

19) 이원규, 상동서

20) 內經에서 “所以任物者”를 心이라 하여 정신 사유활동의 발현과정을 잘 말하고 있다. 差別界의 대상물에 접촉하여 의식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을 心의 발현 및 작용으로 본 것이며, 이후에 意·志·思·慮의 의식 발현 과정을 거쳐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의식 작용의 발현에 대한 이면의 무의식적인 정신사유활동의 기층부를 精神魂魄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런 內經 靈樞 本神篇의 任物하는 心은 本體論的인 心이 아니라, 작용적인(用的인) 차원에서의 온갖 경계에 접촉하여 파동치는 心인 것을 잘 알 수 있다.

21) 이원규, 상동서

22) 이런 입장에서 파동요법은 인간의 신체를 통한 파동치료 뿐만 아니라, 감정과 정서에 대한 치료를 말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신경정신과 영역의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이들 여러 가지 형태의 파동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일까? 1940년 미국의 워싱턴주의 타코마에는 길이 853m, 폭 12m의 다리가 건설되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좌우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다. 건설된 지 4개월 후인 11월 7일 아침, 시속 70Km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동시에 노면이 비틀리기 시작했다. 그 노면을 1대의 자동차가 비틀비를 질주하였다. 즉시 통행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풍속이 빨라지는 것도 아닌데 다리의 횡진동과 비틀림 운동은 점점 심해졌고 노면의 일부가 파괴되어 수면에 떨어지고 이어서 마치 애드벌룬에서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다리의 와이어가 느슨해져더니 다리 전체가 무너져 버렸다²³⁾. 이 다리의 파괴 원인을 조사한 위원회에 의하면 이 다리의 강성(剛性)이 충분치 못해서 발생한 비틀림 운동이 바람의 난류 운동과 공명하여 비틀림 진동이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힘이 공명 현상으로 증폭되어 커다란 힘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이얼 왓슨은 지구의 만물이 태양과 다른 행성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초당 256주기의 주파수를 만들어 내는 소리굽쇠를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또 하나의 자연적인 소리굽쇠 가까이에서 소리나게 하면, 두 번째 소리굽쇠는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첫 번째 소리굽쇠와 어우러져 은은하게 진동하기 시작한다. . . .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은 전자기파의 진동을 일으키며 이것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동일한 자연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지구의 어떤 부분과 공명함으로써 동일한 진동을 만들어 낸다.”²⁴⁾

이처럼 생체 氣를 공진주파수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전자 제품의 모든 회로는 여러 가지 소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든 저항이라는 물리적인 성분이 존재한다. 저항의 성질은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인데, 두 회로에 같은 전압의 전기가 흐를 경우, 저항이 보다 적은 회로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회로에 인가되는 전기적 신호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즉 교류일 때 회로의 저항은 그 교류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어떤 회로는 인가되는 교류 신호의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 값이 감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회로에서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회로를 구성할 때 선택된 소자들의 종류와 배치된 위치에 따라 저항이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저항이 주파수에 따라 변할 때 우리는 어떤 특이한 현상을 만나게 된다. 어떤 회로가 특정 주파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때, 곧 같은 크기의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다른 주파수에서는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고, 특정 주파수의 신호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전류가 흐를 때 공진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 특정 주파수를 그 회로의 공진 주파수, 또는 그 시스템의 고유주파수라고 한다. 라디오 방송의 선택에서 다이알을 돌리는 것은 라디오 수신 장치의 공진 주파수를 변화시켜 주는 작업이다. 원하는 방송국의 송신주파수와 이 공진 주파수가 같은 경우에 공진이 일어나고 그 방송국의 송신 신호만이 잡히게 되며 다른 주파수의 방송국 신호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공진 현상은 TV 등의 전기회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존재한다. 자동차, 철교 등도 자신의 공진주파수를 갖고 있다. 만약 철교에 공진 주파수와 같은 외력을 계속 가할 경우에, 공진에 의해 철교가 매우 심하게 진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공진 현상이 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이처럼 氣를 생각해 보면, 전기의 물성과 너무 유사한 점이 있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氣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인데, 바른 마음, 옫은 음식, 맞는 색깔 등의 선택은 전기회로와 같이 우리 몸의 공진주파수를 변화시켜 氣의 주파수에 맞추는 작업이 아닐까 한다²⁵⁾.

공명현상이란 아주 놀랍고 경제적인 에너지 전달 방식이다. 우리는 아직도 전자기파가 진공의 우주공간을 가로질러 지구로 전달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즉 공명현상을 이용하리라는 것이다. 손을 맞잡고 파도타기 응원을 하고 있는 경기장의 응원단을 생각해 보라. 또는 부채춤을 추는 우리 여인네들의 파도타기 형태를 보라. ‘숫아오른’ 형태를 전달하기 위해 이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입자라면 그 일단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아주 먼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 전달은 그 정보 자체가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 가까운 예로 히란야나 피라밋 파워를 들 수 있다. 이집트 기제의 피라밋까지 굳이 가지 않고 서울의 어느 한 장소에서도 피라밋의 형태라는 정보대로 환경을 조성해 주면 기제의 피라밋내에 형성되는 에너지장이 이루어진다. 큰 노력을 들여 기제의 피라밋을 직접 서울로 가져 오는 것이 거시적 세계의 에너지 전달이라면 미시적 세계에서는 피라밋의 정보만 가져오면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전달은 공명을 통해서 일어난다²⁶⁾. 공명 현상이 물질은 물질끼리 의식은 의식의 차원간에만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의식과 물질 간에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공명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현상의 극명한 예를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상관 관계속에서 본다. 이는 암 치료법으로 유명한 사이먼튼의 긴장완화와 시각화 요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칼 사이먼튼은 일종의 상상법인 시각화의 방법을 암환자에게 적용하여 가끔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나 많은 환자가 같은 장소에서 집단으로 치료를 받는 대중 집단 치료의 경우 그 장(場)내의 생명 파동이 공명 진동을 일으켜 치유력을 상승시킨다고 한다. 기공원(氣功院)이나 기도원에서 가끔 난치병이 치유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명 현상은 파동의 독특한 현상이다. 그러한 공명 현상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패턴이다. 인공 지능의 연구는 생명 현상을 좀더 잘 이해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파동 공명을 통한 패턴 정보의 전달에 지나친 집착적인 연구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인공 지능의 초기 단계로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된다. 패턴 즉 구조는 생물 분자의 연구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분자 고정학을 연구한 이계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DNA와 각종 화학

23) 노이즈의 세계, p. 12

24) 초자연, p. 165

25) 기와 전기회로에 대한 공학 교수의 글이다. 기 수련가와의 오랜 접촉에서 기의 작용을 공진주파수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생체 기의 파동 공명적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씨앗 건강법 p. 182

26) 이원규, 상동서

물질을 세계 정상 연구팀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의 분자 구조를 바꾸어 인체와 세포에 직접 기능할 수 있으며, 이상 세포를 정상 세포로 환원할 수 있다는 데에까지 연구가 미치게 되어 에너지 워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전공한 분자 교정 의학이란 간단히 말하면 유전자 치료를 통해 비정상 세포를 정상 세포로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 속에서는 생선이 썩지만 얼음 속에서는 썩지 않는다. 이는 분자 구조가 바뀌면 성질과 기능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쌍둥이 정보를 기억하는 물을 주면 오이가 2개씩 열리며, 하루를 이틀로 기억시키면 호박이 2배로 빨리 크다. 잔디에 보리 성장점을 기억시키면 잔디가 겨울에도 자라는 것이다. 이렇듯 분자 구조의 패턴은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주파수 자체가 파동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자. 스위스의 한스 제니(Hans Jenny)는 음파 진동 측정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마이크에 대고 O(오)를 발음하면 이 기기는 완전한 구면체의 패턴을 보여 준다고 한다²⁷⁾. O(오)라는 음의 주파수에 의해 만들어진 모양은 그 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 입모양과 정확히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파수가 어떤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홀로그래픽 리패터닝(Holographic Repatterning)이라는 파동 치료법을 창안한 클로워드워즈는 이렇게 말한다. “과학은 이제 물질이란 것이 진동하는 일련의 에너지 장, 즉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파수의 파동 패턴이 물질의 성질과 기능을 결정하며 형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증거를 내보이고 있다²⁸⁾. “거이매너 박사는 조 드렐 बैंक 천문대에 게성운(별자리)의 소리파를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레코딩된 것을 모래층을 얇게 간 금속판에 통과시켰더니 모래에는 게성운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빛이든, 소리가든 간에 주파수 파동 패턴은 일정한 형태를 창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인간의 성격 또한 일련의 주파수 파동 패턴의 장이라고 말한다.

3) 파동 패턴과 理氣論 및 精氣神論

파동의 패턴이란 형태가 유지되는 모습을 말한다. 이 패턴에는 다양함이 있는데, 정적 패턴과 동적 패턴이 그것이다. 물이 H2O로 구성되어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정적 패턴이라면 구름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은 동적 패턴이다. 동적 패턴은 다시 말해 행동 양식이라 볼 수 있다. 정적 패턴은 보이는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정적 패턴인 물질의 구조를 파고 들어 그것이 동적 패턴임을 발견해내었다. 다만 그 패턴이 오래도록 견고히 유지되느냐 아니면 수시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물질에서 의식까지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우리의 몸이 정적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시간의 축 위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적 현상의 패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처럼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적 패턴의 場인 것이다. 波動論에는 파동의 패턴을 타고 발현하는 측면과 패턴 그 자체를 말하는 兩面으로 설명된다. 이런 사고는 理氣論 및 精氣神論과

연계되곤 한다. 즉, 波動 패턴인 理와 그 패턴을 타고 발현하는 氣로 설명되며, 아울러 파동 패턴이 지나는 정보인 神, 파동의 에너지인 氣, 그리고 견고하고 굳어진 파동의 物質化인 精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먼저 理氣論과의 관계를 보자. 理란 바로 패턴을 말하고, 이 패턴이 에너지가 움직이는 형태를 결정한다²⁹⁾. 그것은 에너지가 움직이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氣는 파동의 패턴을 타고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理와 氣는 하나지만 언어로 발화(發話)되는 순간 하나는 둘로 분화된다. ‘우주’라는 하나를 ‘하늘’과 ‘땅’으로 부르면서 둘로 분화시키듯이 말이다. 이 미묘함을 이울곡은 놀랍도록 정연하게 설명한다. “理라는 것은 氣의 주인이요, 氣라는 것은 理가 그 위에 올라타는 것이니, 理가 아니면 氣가 뿌리박을 데가 없고, 氣가 아니면 理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理와 氣>는 이미 두 물건도 아니요, 또 한 물건도 아닙니다.…… 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理와 氣가 비록 서로 떠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묘합(妙合)한 그 가운데서 理는 본래 理요 氣는 본래 氣니,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므로 한 물건이 아닙니다. 두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비록 理는 본래 理요 氣는 본래 氣라 하더라도 혼란무간(渾亂無間)하여 선후도 없고 분리와 결합도 없어 그것이 두 물건이 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動)과 정(靜)이 끊이지 않고, 음(陰)과 양(陽)이 처음이 없는 것과 같이 理가 처음이 없기 때문에 氣도 역시 처음이 없는 것입니다.”³⁰⁾ 여기서 이울곡의 설명처럼 理는 파동 패턴이며, 氣는 패턴이 현상으로 나타나 보이도록 하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패턴없는 에너지는 현상화하지 않고, 에너지 없는 패턴 또한 있을 수 없으므로 과연 이 둘은 둘도 아니요 하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파동 패턴과 파동에너지의 관계는 결국 물질적인 측면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점은 의학의 대상인 生命體가 神形一體임을 감안하여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肉體를 가진 生命體를 대상으로 여기는 韓醫學의 生體 氣 의학적인 波動論은 결국 精氣神論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神은 파동의 패턴이 가지는 情報를 말하는 것이며, 氣는 파동이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精은 파동이 정형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氣는 神과 精의 영역을 오가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며, 이로써 氣一元論의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 된다. 이에 대한 아주 명확한 예로 사이버 스페이스를 생각해 보자. 천리안과 같은 PC통신 상에서는 각 개인이 ID로 구별된다. 그런데 그 ID라는 것이 화면에 표현되거나 천리안 대형 컴퓨터에 기록되기는 그저 하나의 글자이거나 메모리 번지수에 불과하다. 그것은 ‘정보’이다. 이 세상이 온통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해 보자. 거기서 한 개인을 구별짓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보이며 패턴이다. 패턴은 곧 정보인 것이다. 사이버 스페

29) 理는 파동 패턴이다. 다스린다는 뜻의 理는 氣가 흐르는 패턴을 나타내고 理는 氣를 움직이게 하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30) 栗谷先生全書卷之十 書二 答成浩原 : 夫理者氣之主宰也. 氣自理之所乘也. 非理則氣無所根, 非氣則理無所依者. 既非二物. 又非一物. 非一物故一而二. 非二物故. 二而一也. 非一物者. 何謂也. 理氣雖相離不得. 而妙合之中. 理自理氣自氣. 不相挾雜. 故非一物也. 非二物者. 何謂也. 雖曰自理氣自氣. 而渾論無間. 無先後無離合. 不見其爲二物. 故非二物也. 是故動靜無端. 陰陽無始. 理無始. 故氣亦無始也.

27) 이원규, 상동서

28) kindred spirit(1996), 이원규, 파동의 회오리가 창조하는 우주적 패턴

페이스에서 한 개인을 '정보를 가진 패턴'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컴퓨터 메모리 칩이라는 '하나의 장'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의 세계라 부르는 이 세상을 한번 보자. 이 세상은 理와 氣가 혼재되어 존재하는 단순한 세계이면서 동시에 千變萬化하는 다양한 세계처럼 보인다. 이것은 모두가 氣라는 하나의 장에서 피어나는 理의 다양한 패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그저 하나의 패턴이며 정보의 차이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패턴들은 오직 하나의 場, 근원적 에너지 場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4) 파동과 場

이렇게 우주와 우리 주위의 만물이 파동 현상과 정보를 담고 있는 패턴으로 설명되고, 파동 전달의 배후에는 공명 현상이 있다. 그렇다면 몇 가지 파동의 합이, 또는 수많은 파동들의 합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생체를 만들고 우주를 형성하는 것일까? 그 비밀은 또 하나의 우주적 현상인 시너지 효과에 있다. '내면으로의 여행'의 저자 셸리 맥클레인이 사사를 받았던 크리스 그리스콥은 이렇게 말한다. "장대한 우주적 드라마 중의 하나는 시너지라는 현상이다. 시너지는 에너지의 완벽한 움직임이다. 그것은 자신과 비슷한 종류를 찾아 가장 신성한 시간 속에서 특별한 진동으로 모이며, 이는 상당한 양으로 모일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임계 지점에까지 이르면 폭발하여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는 분열을 이룬다." 31) 시너지란 여러 가지 파동 패턴들이 모여 구성 요소를 이상의 상승작용을 하여 새로운 무엇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두 개 이상의 패턴이 모이면 언제나 단순한 두 개 이상의 새로운 무엇이 탄생된다. 만물은 시너지 현상을 통해 있는 것이다32). 1 + 1 = 2가 아니라 3이며 4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다. 특히 생명 현상은 결코 환원주의자들의 말대로 하나하나 분리된 세포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바로 여기서 場의 개념이 도입된다.

인류에게 처음으로 場(field)이라는 개념을 선사한 이는 패러데이(Michael Faraday, 1791 - 1867)이다. 중력처럼 원거리에서도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내는 場의 개념은 당시의 과학자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이로부터 電磁氣場이 별개의 물리적 실재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場이라는 개념은 이제 생명체에도 적용되고 있다. 라이얼 왓슨은 시너지 효과로 탄생한 生命場에 대해 "생명장은 직류 전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심전계에 의해 기록되는 뇌파나 충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심장이 박동하거나 뇌가 자극을 받을 때마다 측정 가능한 전하를 만들어내지만 生命場은 이것들을 합한 효과와, 신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들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다른 작은 전하들의 총체적인 결과인 듯하다." 33) 라고 말하고 있다. 형태 성장은 1939년 폴 바이스에 의해 처음으로 태아에 이미 그 개체의 형태와 성질이 담겨져 있다고 제안되

었다. 그 후 형태성장 이론은 루퍼트 쉘드레이크에 의해 1980년대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쉘드레이크는 과거의 필드들이 축적되어 현재의 새로운 필드가 형성된다고 그의 형태 성장론에서 주장한다34). 특정한 형태성장이 생명체를 비롯한 모든 우주 존재에 복잡하고 다양한 성질들을 제공하고 에너지적으로 가능한 여러 형태에 양자 역학의 확률의 개념을 넘어서는 일정한 정형성을 부여한다. 그 種의 어떤 개체가 경험한 행동이나 형질의 영향이 형태 성장을 통해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개체에 작용하는 현상을 형태공명(morphic resonance)이라고 형태성장 이론을 설명한다. 생체 전자기장이 단지 한 개체의 장만을 설명하는데 비해 형태성장은 개체뿐 아니라, 종 전체를 하나의 장으로 설명하며, 우주의 모든 물질의 비물질적인 기억 능력으로까지 장의 개념을 확대한다. 형태 성장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어느정도 증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현대 과학 수준에서 어떤 설명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질지도 모르나, 쥐를 이용한 실험이 이미 실행되었고 그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이 설명은 形態場의 물리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形態場은 '새로운 생명 과학(a new science of life)'의 저자이며 생화학자 식물생리학자인 루퍼트 쉘드레이크의 주목받는 이론의 주제이다. 이 이론은 종전에는 풀 수 없었던 생물학의 몇몇 수수께끼를 풀어 준다. 그의 形態場 이론이란 생명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비물질적 기억능력을 말한다. 온 몸의 세포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분화하며, 한 가지 종류의 DNA를 복제받았기에 유전 물질의 구조가 동일하다. 그런데 왜 우리의 손과 발은 아주 다르게 생겼을까? 당신 손의 세포는 왜 그런 모양으로 성장을 멈추며, 어떻게 계속해서 비슷한 모양을 유지할까? 동일한 화학 구조식으로 이루어진 손과 발의 전체 모양새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形態場 이론이다. 즉 우리 몸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는 形態場이 몸을 둘러싸고 성장,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形態場은 共鳴 현상을 통해 후손에게 전달되며, 1년 전 나의 몸과 현재 나의 몸 사이의 시간 간격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루퍼트 쉘드레이크는 말한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나 식물의 모양새 뿐만 아니라, 행태나 행동 양식에도 '形態場'은 영향을 발휘합니다. 저의 연구 결과로는 동물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形態場도 근본 원리에 있어서는 생물체의 모양새를 정하는 방식과 동일한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어떤 種내에 축적된 사건, 다시 말해 그 종의 어떤 개체가 경험한 행동이나 형질의 영향이 형태의 장을 통해 같은 종에 속하는 다른 개체에게 작용하는 현상을 저는 특별히 '形態共鳴(morphic resonance)'라고 부릅니다." 35) 이처럼 그

31) time is illusion p. 143

32) 노자 도덕경에서 "三生萬物"을 말한 것은 바로 波動의 시너지 효과와 場의 웅대한 우주적인 드라마를 이야기한 것이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이론과 과학적인 사고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33) 초자연 p146

34) 쉘드레이크의 형태성장은 실험적인 접근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전에 등장했던 모호한 개념들과 대조된다. 만약 어떤 동물들이 새로운 패턴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그 새로운 패턴을 처음 동물보다도 빨리 익힐 수 있다. 동물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학습 정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쥐가 새로운 재주를 익히면 일본이나 미국의 쥐들도 같은 재주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35) 신과학 산책, p233

35) 신과학 산책

는 우리 몸의 형상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패턴까지도 形態場에 기억될 수 있으며, 같은 종끼리 또는 비슷한 形態場을 가진 개체들끼리는 形態 共鳴을 통해 원격 전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여기 한국에 있는 쥐에게 새로운 재주를 한가지 가르칠 경우 얼마 후 뉴욕의 쥐, 오스트레일리아의 쥐, 아프리카의 쥐들이 같은 재주를 배울 경우 더 쉽게 익혀간다는 이야기입니다.”³⁶⁾

우주는 파동 패턴의 場이다.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의 정립을 위해 마지막 생애를 다 바쳐도 끝내 이루지 못하고 갔지만, 우주는 여전히 하나의 場인 것이다. 패턴들이 공명을 통해 전달되고, 전달된 패턴들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장을 형성하며 결국 우주는 하나의 장을 이루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며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무언가 다른 것으로 설명되며, 또한 다른 것을 설명한다. 분리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단독으로 이름 붙여지거나 설명될 수 없다. 氣의 파동적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될 새로운 세계는 독립된 어떤 한 측면이란 것이 없다. 그래서 한쪽 측면을 먼저 묘사하고 나서 다른 측면을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 사물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입자의 세계라기보다 파동의 세계이다. 파동의 세계는 한 곳에 있으며 동시에 모든 곳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한 장소에 있을 때는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입자와 같은 세계가 아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 있고 또한 세계에 있고 우주 전체에 있는 것이다. 곧 존재는 파동인 것이며, 파동 중심의 氣一元論의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이 마련되는 것이다.

결 론

생체 氣에 대한 파동공명적인 연구 현황과 자극에 따른 수용 문제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파동공명의 연구는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이종에서 미세자기 공명장치라고 주장하는 MRA 계열의 파동공명 기기는 뛰어난 임상활용에도 불구하고, radionics에서 기원한 점 등으로 인하여 전기 회로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엄격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주파수 발생에 의거한 파동 공명장치는 저주파 진동수를 전기자극 양상으로 보낸다. 파동水는 파동 공명에 대한 물의 전사를 이용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요하고 있다. 생체 氣의 파동 경계에 따른 자극과 감각기의 수용은 감각 기관과 이에 상응하는 波動의 연계로 관찰된다. 파동에 실린 정보는 나름대로의 구별되는 패턴이 있으며, 여러 형태의 파동들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共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波動論에는 파동의 패턴을 타고 발현하는 측면과 패턴 그 자체를 말하는 兩面으로 설명된다. 理氣論으로는 波動 패턴인 理와 그 패턴을 타고 발현하는 氣로 설명되며, 아울러 精氣神論으로는 파동 패턴이 지니는 정보인 神, 파동의 에너지인 氣, 그리고 견고하게 굳

어진 파동의 物質化인 精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생체 氣의 파동적인 연구가 한의학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波動의 숨이 살아 움직이는 생체를 만들고 우주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파동 패턴들이 모여 구성 요소들 이상의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場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패턴이란 일종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물질적 근원자의 배열과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영호외2인 국제생명정보학회의 최근의 연구 동향,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21-28, 2000.
2. 방건웅 미약자기공명분석의 역사와 원리, 제3차 응용미약자기에너지학회 논문집, p81-96, 1997.
3. 박민용외 4인, 미약자기공명분석장치의 원리와 생체시스템의 전기 자기적 특성(2), 한국정신과학학회지, 3권1호, PP.25-34, 1999.
4. 유상구의 6인, BRS 생체정보 분석 방법의 정확도 확인 연구, 한국정신과학학회지 2권 2호, 1998.12.
5. 김성수, QRS로 측정된 비만도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1998.
6. 방건웅, 기를 규명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들, 지금 여기, 미내사 모임, 1997.
7. 이경복 옮김, 라디오닉스의 원리, 지금여기, 미내사 모임, p111-127, 1998.
8. 이경복, 라이프 박사와 공명 에너지장치의 비밀, 지금 여기, 미내사 모임, PP. 52-60, 1998.
9. 저주파치료기 매뉴얼, 퀸텐, 2000.
10. 전무식, 6각수의 수수께끼, 김영사, 1995.
11. 박영호, 토션필드 소개, 지금 여기, 미내사 모임, pp. 56-76, 2000.
12. 현문식 역, 빛의수수께끼, 고려원미디어, 1993.
13. 이인식, 미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민음사, 1995.
14. 박문재 역, 초자연, 도서출판 인간사, 1991.
15. 이원규, 파동의 회오리가 창조하는 우주적 패턴, 지금여기, p.8-32, 1997.
16. Darius Dinshah, let there be light, Dinshah Health Society, 1996.
17. 반광식 역, 하루야마 시게오 저, 뇌네혁명, 사람과 책 1994.
18. 박경규, 건강과 음악치료, 도서출판 빛샘, 1995.
19. 김수용 역, 노이즈의 세계, 전파과학사, 1995.
20. 이울곡, 국역 粟谷全書(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21. 김형동, 씨앗 건강법, 청산, 1996.
22. 김현원, 생명체의 통일장 - 형태성장, 지금여기, 미내사 모임, p. 104, 1999.